

Merck, 수질분석 세미나 개최

Merck Korea는 5월29일 1시 강남구 대치동 디자인섬유센터에서 본사의 Spectrophotometer 프로덕트 매니저 Gunter Decker를 초청해 수질분석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내 수요처를 위해 방한해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으로 Merck의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은 물론 UV장비 및 표준 실험을 진행하는 수질 분석가들을 대상으로 장비와 시약에 대해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수질·폐수 등을 비롯한 환경산업에서 식품, 제약, 음료, 농업, 어업, 금속 등 관련 산업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분야에 대한 세미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환경단체나 소비자들의 품질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수질분석 담당자들은 최적의 정성·정량 분석법 연구개발에 전념

하고 있다.

이에 Merck는 세미나를 통해 ▲엄격한 품질 기준 확립과 관리에 필요한 수질 분석방법의 세계적인 기술 동향 ▲다양한 정밀 분석법 간의 차이점 ▲음료와 폐수 내의 특정물질 분석 등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09/05/27>